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그래프/분석)-유로존 시장에 다시 등장한 '퀴탈리' 조짐

◇ (초점)-동서발전 5 억달러 부채스왑 '미풍' ..크로스 금리 향방 '오리무중'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행정부의 '미국 재개' 계획에 관한 업계 지도자들과의 토론회 도중 방송 카메라 퓨파인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비쳤다. (로이터/카를로스 배리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18.2	1.4%	-5.1%	-3.5%	유로	1.0983	1.5%	-2.0%	-2.3%
100엔 대비	1,145.5	-0.1%	-7.3%	-4.4%	엔	106.93	0.5%	1.6%	0.9%
유로 대비	1,344.8	-1.0%	-3.8%	-1.3%	위안	7.0765	-0.1%	-1.6%	-1.3%
위안 대비	173.39	0.2%	-4.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3,723.69	-0.2%	-16.9%	22.3%
코스피	1,947.56	3.1%	-11.4%	7.7%	나스닥	8,604.95	-0.3%	-4.1%	35.2%
코스닥	645.18	1.9%	-3.7%	-0.9%	S&P500	2,830.71	-0.2%	-12.4%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71.74	3.4%	-14.7%	15.8%
국고채 3Y	1.006%	-1.2bp	-35.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46%	-3.1bp	-23.4bp	-40.4bp	미국채 2Y	0.198%	-2.5bp	-136.3bp	-93.7bp
국고채10Y	1.518%	-2.8bp	-16.5bp	-26.5bp	미국채 10Y	0.618%	1.3bp	-129.2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19.78	16.8%	-67.6%	34.5%	한국 5Y	32.0bp	-5.1bp	10.9bp	-17.0bp
금(현물)	1,699.12	-1.6%	12.0%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081.26	-1.2%	-16.3%	4.8%	중국 5Y	47.7bp	-0.9bp	17.1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4일(월)>

-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5일(화)>

- 공휴일

<6일(수)>

- 특이일정 없음

<7일(목)>

- 한은, 4월말 외환보유액(06:00)
- 한은, 3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간(10:00)

<8일(금)>

- 특이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4일(월)>

- 중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10:45)
- 유로존, 5월 섉덱스 지수(17:30)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뉴욕지수(22:45)
- 미국, 3월 내구재주문(23:00)
- 미국, 3월 공장주문(23:00)
- 중국, 일본 휴장

<5일(화)>

- 호주,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13:30)
-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18:00)
- 미국, 4월 마켓 서비스업 PMI(22:45)
- 중국, 일본 휴장

<6일(수)>

- 중국, 4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10:45)
- 유로존, 4월 마켓 서비스업 PMI(17:00)
- 유로존, 3월 소매판매(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4월 ADP 전국고용동향(21:15)
- 일본 휴장

<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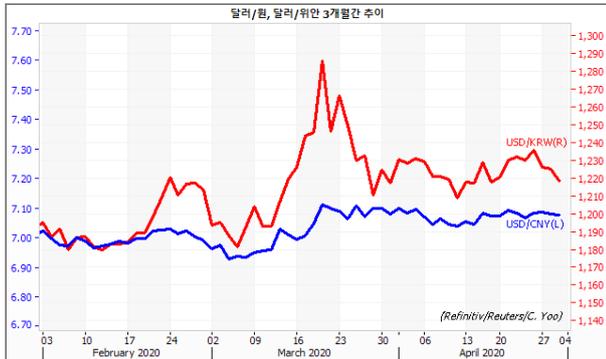
- 일본, 일본은행 3월 18~19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08:50)
- 영국, 영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20:00)
- 미국, 4월 챌린저 해고건수(20:30)
- 미국, 1분기 노동비용(21:30)
- 미국, 3월 소비자신용(8월 04:00)
- 중국, 4월 외환보유고(17:00)
- 중국,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8일(금)>

- 일본, 3월 가계지출(08:30)
- 미국, 4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21:30)
- 미국, 3월 도매재고 및 판매(23:00)
- 프랑스, 영국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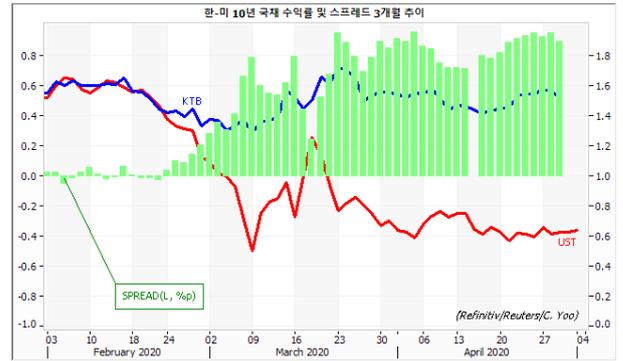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 갑자기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05-1240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주요국에서 경제활동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는 등 코로나 19 사태 종결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다.
- 하지만, 실물 경제 충격 여파가 경제지표를 통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수출은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24% 급감해 2009년 5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함께 나왔다.
- 월간 무역수지 적자 기록은 외환시장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재료다.
-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조짐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19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 19에 대한 램데시비르 치료제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개 활동 재개에 따른 북한 리스크 감소 등 호재성 재료에도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며 보수적인 흐름을 보일 공산이 커 보인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국내외 주가, 코로나 19 확산 속도 등과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은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채권 공급 확대에 따른 당국의 대응책 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 큰 태풍이 지나간 것 같은데 돌아와 보니 이 금리다. 국고채 3년물 1%, 10년물 1.5%다. 혹독한 경기 침체 전망과 대규모 물량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엇갈리며 매수-매도 간 시소계임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력균형을 흔들려놓을 만한 재료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 4일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로이더통신이 이코노미스트와 채권애널리스트 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5% 상승(중간값 기준)하고 3월보다는 0.3%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1분기 국세 수입 규모를 담은 월간 재정 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1~2월 국세 수입은 46조 8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 4000억원 적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재료다.
-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영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의 확대 흐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같은 신속인수제 시행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이번 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4%였던 실업률은 4월에 10%대 후반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도 2000만개 이상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프/분석)-유로존 시장에 다시 등장한 '퀴탈리' 조정

런던 (로이터) - 이탈리아발 유로존 붕괴 리스크를 측정하는 시장 척도들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해, 유로존에서 또 한 번의 존폐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을 가능성을 신호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부채 증가에 직면해있고, 지원 요청에 대한 부유한 북부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23일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1 조유로 규모의 비상 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다. 여러 국가들이 이탈리아가 요구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옵션인 공동 채권 발행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탈리아 일부 정치인들이 유로존 멤버십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퀴탈리(Quitaly,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지수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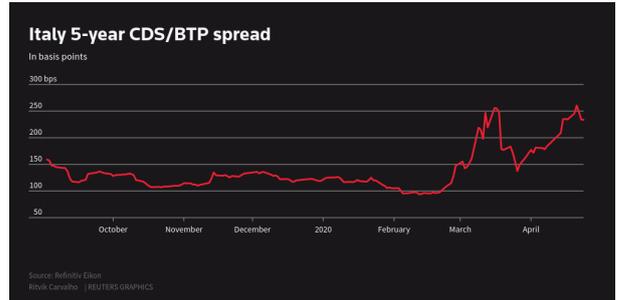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은 이탈리아의 차입 금리 상승을 제한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탈리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시키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은 ECB가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를 내놓기 전인 3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5년물 CDS 프리미엄이 지난주 260bp 부근으로, 이탈리아가 EU와 예산안을 두고 대립했던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을 두고 라보뱅크의 리처드 맥과이어 금리 전략 헤드는 시장이 완전히 안심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며 일부 '분열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CB는 각국이 금융시장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만큼, 코로나 19 위기

로 초래된 재정 부담에 따른 상환능력 우려는 해결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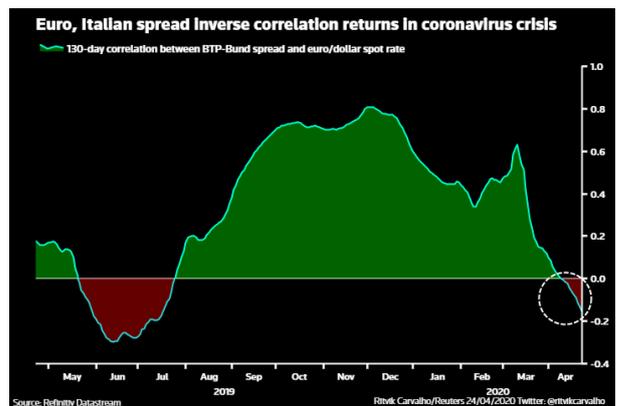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유로 주시

유로는 3월초 이후 6%가 절하되며 지난주 달러 대비 1 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대비 이탈리아 수익률 프리미엄은 230bp로 50bp 이상 확대됐다.

유로와 스프레드 간의 역상관관계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탈리아 스트레스가 유로에 위협요인으로 비춰질 때마다 나타난다. 특히 4월초 이후 이런 현상이 눈에 띈다.

이탈리아 연립여당 중 하나인 오성운동은 유로존의 유럽안정화기구(ESM)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오성운동 당수는 더 나아가 이탈리아의 EU 잔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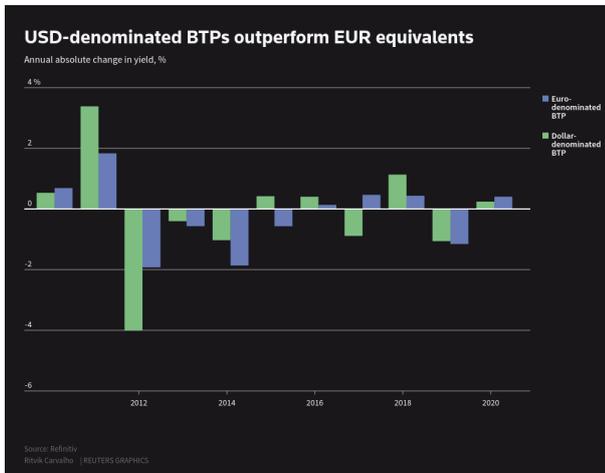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달러 매입

유로존내 이탈리아의 위치가 위기라면 이탈리아의 유로 채권보다는 달러 채권이 더 나은 투자로 보인다. 쿼탈리가 발생한다면 이탈리아 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새 통화로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더 취약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15년물 달러 채권 수익률은 연초 대비 25bp 가량 상승하는데 그친데 반해 비슷한 만기의 유로 채권 수익률은 36bp 가 상승했다.

이탈리아의 달러 채권은 EU 와 다름이 있던 지난 2018 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동서발전 5 억달러 부채스왑 '미풍'..크로스 금리 향방 '오리무중'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동서발전의 5 억달러 외화채 발행 관련 부채스왑이 나왔는데도 통화스왑(CRS)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하고 있던 자산스왑 물량이 부채스왑 물량과 상쇄됐다는 평가 속에 향후 CRS 금리 방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8 일 오후 3 시 현재 CRS 3 년 금리는 전날보다 2bp 하락한 -0.345%, CRS 5 년 금리는 전날보다 3bp 하락한 -0.285%에 거래되고 있다.

CRS 3 년, 5 년 금리는 27 일에는 전날보다 2.5bp 씩 상승했다. 동서발전이 27 일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본드 발행을 공식화하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는 소식에도 금리 상승폭은 제한됐다.

동서발전은 전날 장 마감 후 비딩을 통해 부채스왑 물량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5 억달러 규모의 부채스왑이 나왔는데도 전날 CRS 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28 일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자 시장참가자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부채스왑을 받은 은행들이 이미 자산스왑 플로우를 쏟아놓고 있다가 포지션을 상쇄시킬 것으로 평가한다.

A 은행 자금운용부장은 "5 억달러 부채스왑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밀리고 있다"며 "어제 나왔던 부채스왑이 그동안의 에셋스왑을 털고 가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며 "5 억달러 부채스왑을 받은 것 치곤 5 년 비드가 너무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부채스왑 일정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산스왑을 쏟아냈다는 진단도 나온다.

B 은행 스왑 딜러는 "최근 들어 부채스왑이 나오는 날 보험사들이 자산스왑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동서발전처럼 시장 모두가 알고 있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과 동시에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고 말했다.

향후 CRS 금리 방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동서발전의 글로벌본드 발행이 마무리된 가운데 당장 잡히는 파이프라인은 한국도로공사 정도다. 하지만 동서발전의 글로벌본드 발행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추가로 발행을 시도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거래 관련 비드도 늘어날 수 있다.

자산스왑 역시 플로우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달러채 매입 메리트가 커졌다는 인식이 있어 수요가 지속되리라는 분석이다.

C 은행 이자율 딜러는 "부채스왑과 자산스왑 간 수급이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긴 한데 수급 풀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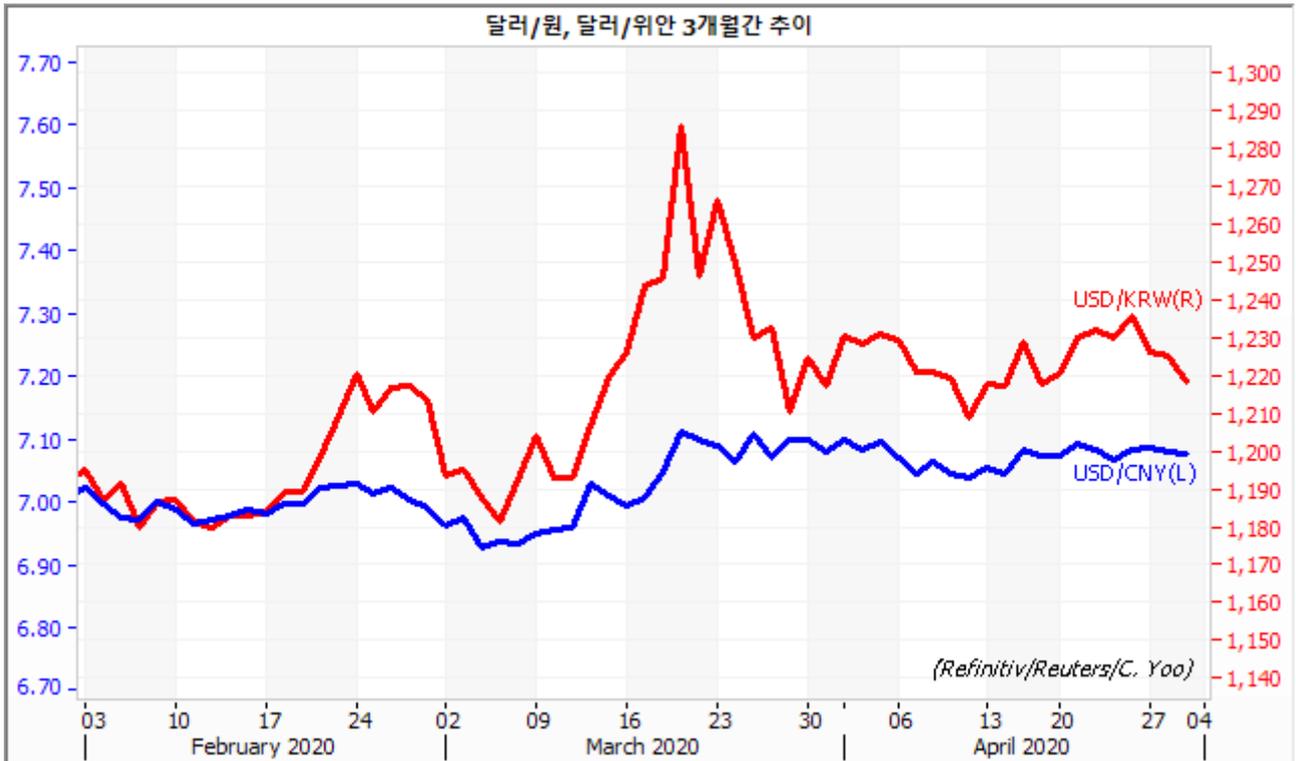
심하다"며 "부채스왑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도 당장
오퍼할 게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수급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
는 아니다"라며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장이라 한
번 포지션이 꼬이면 크게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
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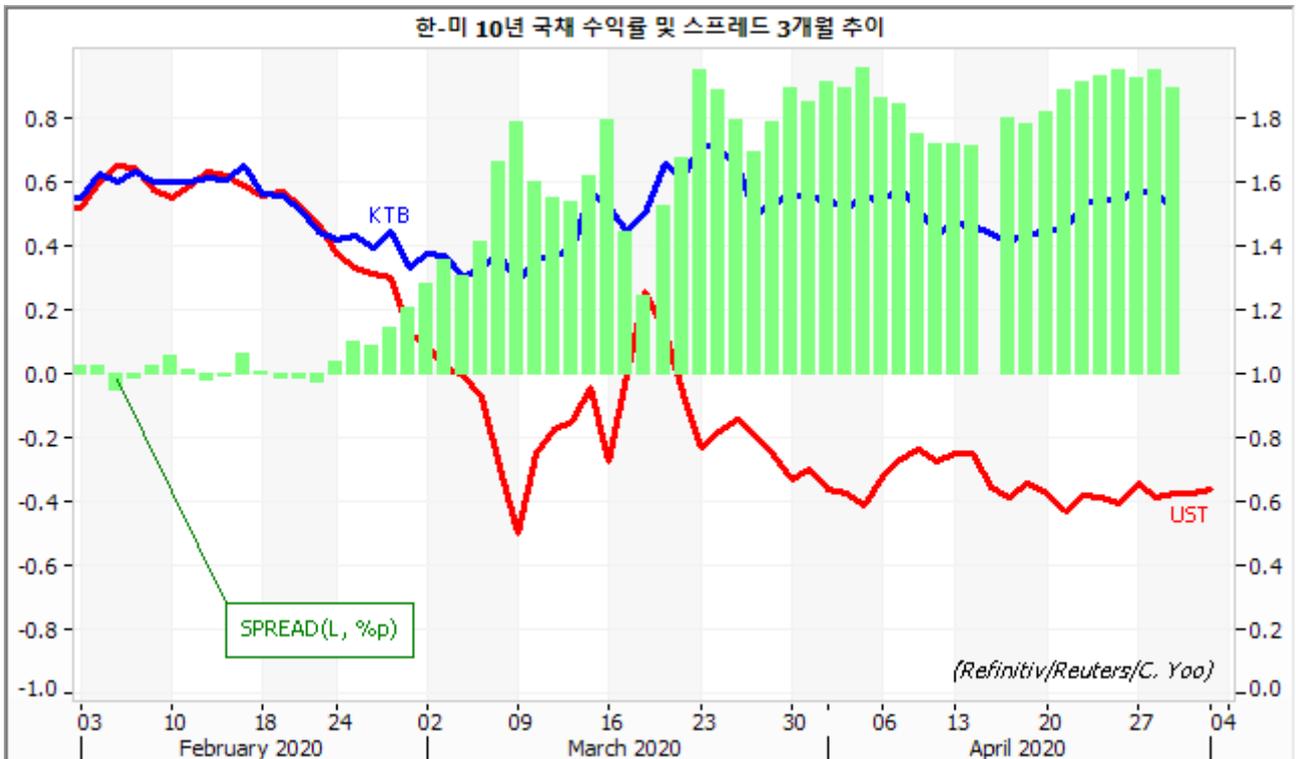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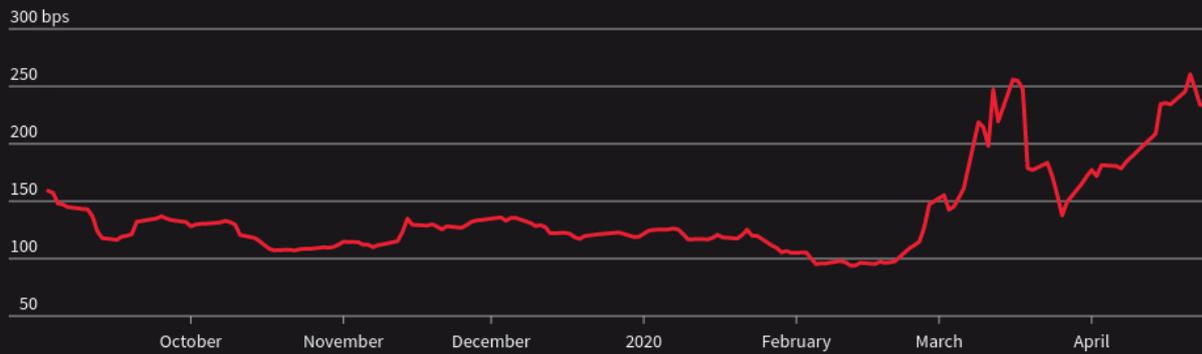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Italy 5-year CDS/BTP spread

In basis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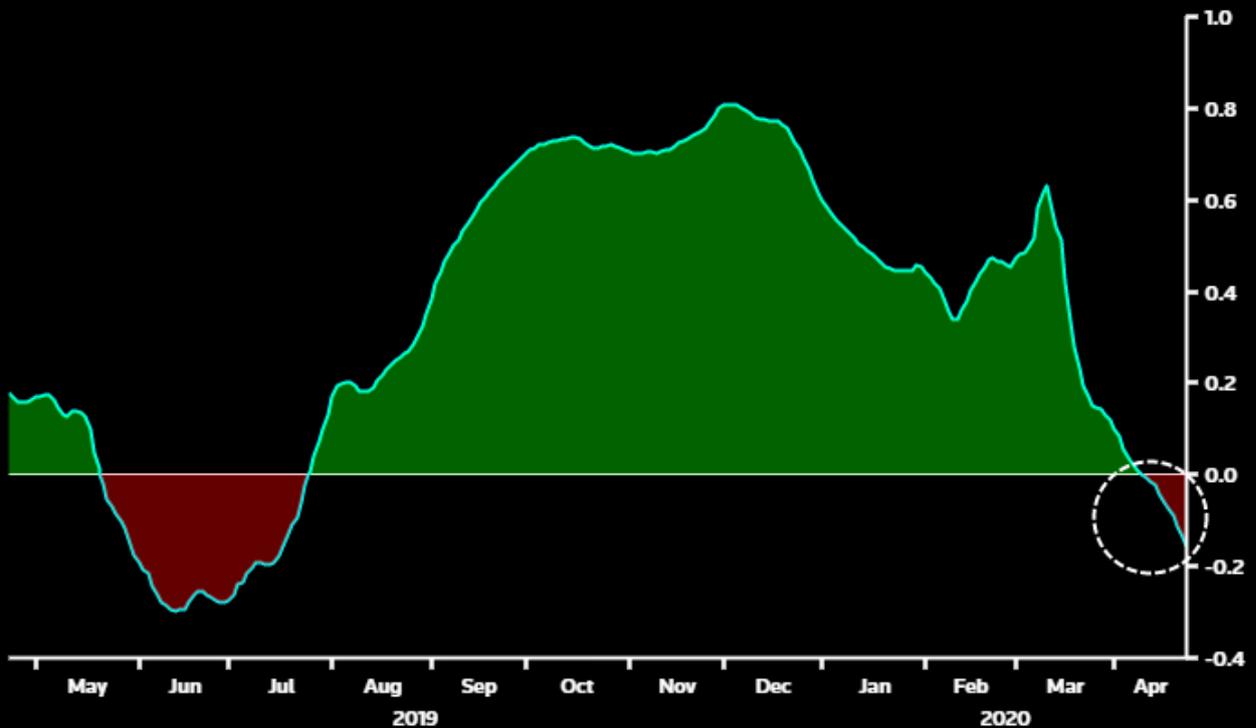


Source: Refinitiv Eikon
Ritvik Carvalho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uro, Italian spread inverse correlation returns in coronavirus crisis

130-day correlation between BTP-Bund spread and euro/dollar spot rat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24/04/2020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USD-denominated BTPs outperform EUR equivalents

Annual absolute change in yield, %



Source: Refinitiv
Ritvik Carvalho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